

2005년 5월 10일 (조간,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 ▶ 2005. 5. 배포
- ▶ 총 5쪽

보 도 자 료

- ▶ 인적자원개발과 김홍섭 사무관
- TEL : 2110-7097~9
- E-MAIL : sori9760@hanmir.com
- FAX : 503-9538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37개로 확대 - (‘05년 상반기 7개 기관 신규 선정)

- 노동부는 ‘05년 5월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 7개소를 새로이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신규 운영기관 명단>

운영기관	훈련직종	월 평균 훈련 연인원 계획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준측량, 조경설계 등	203
(사)한국출판인회의	출판제작, 디자인 등	211
전북기능대학	기계, 금형설계 등	258
충천기능대학	에너지설비 등	300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인력개발타운	메카트로닉스 등	229
한국기술교육대학	금형, 전산 등	645
한국과학기술원	디스플레이 등	224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등의 우수한 훈련시설·장비를 활용해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 '01년 시작된 이후 30개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작년 한해에 약15천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약38천명의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재직근로자 능력 개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 분	'01	'02	'03	'04
운영기관(개소)	6	8	19	30
훈련인원(명)	4,091	9,931	20,436	38,333
참여중소기업(개소)	1,029	3,186	8,258	14,861
지원금액(백만원)	3,238	6,085	14,104	16,848

※ '04년 컨소시엄의 훈련인원 약38천명 중 양성훈련인원은 4,423명이고 취업률은 78.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별첨 : 대기업-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우수사례 : 대우조선해양 기술교육원

- '05년 상반기 신규로 선정된 7개 운영기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보강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 특히 금년부터 대학이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한국기술교육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 대학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을 계속 확대(운영기관 '04년 30개→'05년 40개 이상→'08년까지 60개 이상)할 계획이다.

<별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개요

○ 목 적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01년부터 핵심중점사업으로 추진
- 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정부는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 자체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양성 및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대학

○ 훈련기관

- 자체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한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대학

○ 훈련과정

- 신규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납부보험료의 120%(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등은 360%) 범위내에서 연간 15억 한도
- 인건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80%(4인까지)
- 홍보비 : 연간 3,000만원 한도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의 80%~100%

이직률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져

대기업-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우수사례 : 대우조선해양 기술교육원

4년 연속 직업훈련컨소시엄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뽑힌 대우조선해양 기술교육원의 사례는 직업훈련 컨소시엄의 필요성과 장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회사가 중소 협력회사들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1년 7월. 사내 직원들의 직업훈련만을 전담하던 기술교육원을 교육 시설을 갖춘 형편이 안되는 중소 협력회사 직원들의 직업훈련 기관으로 개방하면서다.

당시만 해도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내부는 물론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중소기업들마저도 그 필요성과 성과를 확신하지 못했던 탓에 계획했던 것보다 참여율은 비교적 낮아 애초 목표의 43%에 불과한 30여개 기업만이 참여했고, 첫째 훈련인원은 712여명에 그쳤다.

하지만 컨소시엄을 시작한 다음해인 2002년에는 참가 중소 협력회사의 수는 96개로 늘었고, 한 해 동안 신규인력과 재직근로자 등 모두 2,122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해 만점 효과를 거뒀다. 이는 컨소시엄 시작 전 훈련인원 784명에 비해 무려 270%가 증가한 수치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인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가 아래 2003년 2,483명, 2004년은 3,002명 훈련실시로 목표 인원보다 200%를 초과했다.

※ 양성훈련실적 : '01년 349명 수료(330명 취업, 취업률 95%)
'02년 654명 수료(609명 취업, 취업률 93%)
'03년 875명 수료(808명 취업, 취업률 92%)
'04년 675명 수료(652명 취업, 취업률 97%)

이처럼 대우조선해양의 직업훈련 컨소시엄에 중소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컨소시엄을 통해 훈련받은 직원들의 숙련도 향상으로 인한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컨소시엄을 통해 직원을 교육시킨 100여개 중소기업들의 경우 생산성이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200%에 이르던 이직율도 50%까지 떨어져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6개월에서 1.5년으로 늘었고, 장기근속을 통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업훈련컨소시엄이 이처럼 각광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중소기업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효율적인 컨소시엄 운영체계에 있다.

이 회사는 중소 협력회사 대부분이 자체적인 훈련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훈련 컨소시엄을 통해 모기업의 축적된 기술을 지원하고, 재정, 후생복지 등의 부분에 대해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교육기간 동안 임금을 모기업에서 지원해 중소기업 직원들의 교육 참여의지를 높였고, 활황세에 있던 조선산업의 부족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공급함으로써 모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 협력회사의 필요인력 신청을 미리 받아 맞춤형교육을 실시해 취업시켜주는 ‘맞춤훈련’은 협력회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각 사 대표와 기술교육원 교사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훈련 계획 수립과 교재개발, 컨소시엄 비용투자 심의 등의 협의와 조정을 수행한 것도 합리적인 컨소시엄 운영에 큰 힘이 됐다.

특히 직업훈련 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거친 교육생들을 대부분 중소 협력회사들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업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올해에도 선체조립과 특수용접, 전기공사 등 양성훈련 900여명, 향상훈련 2,375명 등 3,275여명의 훈련을 계획, 컨소시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